

buddhanews.com

어디다 절을 해도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

25면에서 계속

그래서 조금 아까 무엇을 어떻게 했던 무엇을 들었던, 모두 벌써 과거로 돼 버렸어요. 과거가 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과거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현실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는 벌써 없어졌지요. 그러니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의 내 한마음이 바로 삼십이요, 그것이 한데 합치면 삼보가 되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자기 전체 한마음으로써 더불어 같이 한가운데 삼보를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상대가 없죠. 내가 없다면 삼보도 없고,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나로부터. 나에게 삼보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때 부처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고 움직여가다 하면 법신이자 화신이고, 화신이자 보신이에요. 보신이자 또 금방 화해서 응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예전 공부한 선지식들께서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저거니 할 거 없이 그대로, 생활 자체에 그대로 살아 나가고 그대로 굴러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생활이 그냥 여여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즉 말하자면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다니더라도 돌 아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돌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돌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돌이 아니요 어찌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다르며, 법이 다르며, 움직여가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법이 돌이 아닐지언턴 승보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이걸 그냥 따라다니는 겉데기입니다. 그런 겉데기 차와 같은 거죠. 운전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차.

그러나 그 겉데기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그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화두죠! 내가 없었더라면 우주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상대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나왔죠.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일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겉데기가 움직여가는 것보다도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이 같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움직여가고 이러는 게 아

니죠. 마음내는 것 따로 있고 움직여가는 육체 따로 있고, 마음내는 놈 따로 있고 마음내기 이전 놈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돌이 아닌 까닭에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놓고 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와 나와 돌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돌이 아닌 까닭에 일정례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동글러서 내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어디다가 절을 해도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경계에 대해서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모든 걸 놓아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간다는 말을 여러

그 모두를 커버할 수 있고 자유스럽은 대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얘기하던 것과 같이 진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놓고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고 부드럽게 뜻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가 된다면 진실하게 구함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깨닫는 소식도 얻을 것이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 그 편안함, 편안함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냥 무조건 '옳다, 보라! 죽기 아니면 살리지.' 이라고 놓는 거하고, 믿고 놓고 편안한 것과 다른 거죠. 항상 얘기했듯이 모두가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진실로 그렇게 감을 이 된다면 나 아님이,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 한마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 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뜻이니까 그대로 거기에 맡기고 믿고 진실되게 가야 하는데, 믿지 않거나 설 믿는다면, 잘했을 때 '아!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에 가서 안되면 아, 이걸 또 도무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악업 선업을 다 보라 하는 것은,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는 것인데 어떠한 까닭이냐?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이거죠. 자유인의 대권을 얻었다면 불리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익하면 올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익하거나 해롭거나 올려놓을 줄만 안다면 그런 망하고 마는 겁니다. 전생에 나가서 싸울 때도, 후퇴할 때는 후퇴하고 전진할 때는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수능란한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지휘를 맡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자유자재한다는 뜻은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모든 것을 이익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지만, 얼른 쉽게 말해서 아주 권력을 남용하고 모든 일에 부정으로 가고 그러면 그냥 부정으로 가게끔 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행해 봐야 '아이쿠!' 하고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올려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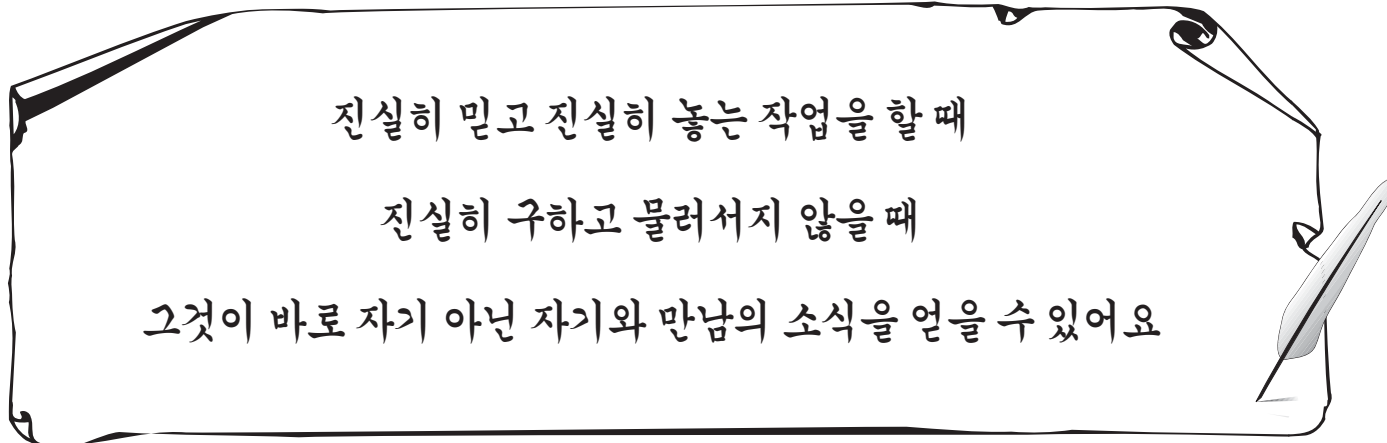
면서, 또 스님네들이 그것을 호응을 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을 형성시킨 그 장본인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이날까지 끌고 나온 그 은혜를 모르고, 옷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움직여가게 하고, 모든 매사 거를, 전체 그 방법을 알게 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고 또는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서 강가에 나와서 강신, 즉 말하자면 물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도 그걸 동조해서 그것을 지내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느냐? 각자 자기 주인이 화해서 자기 마음들을 그렇게 쓰고 행동들을 그렇게 하니, 자기 마음이 오방신장이 돼 가지고 그 눈을 부릅뜨고 몽둥이로 치고 해도 모릅니다. 횡포를 맞아도 어디서 맞지도 모릅니다. 칼로 자르고, 에는 듯하게 잘라도 그것을 어디서 그러는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방법을, 현재의 방법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유식으로 해서 방법을 다스려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유식으로 해서 방법을 다스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 근본을 감사히 생각하고 믿고 물려서 지 않고 거기에서 안으로 굴러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조절이 된다면,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나를 조절하는 방법의 근원이 돼서 그게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強濟)를 지내는 거뿐만 아니라 모든 이치에 어긋나게끔 모두 하니 동그란 그릇에 네모난 뚜껑을 덮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긋나고 사는 게 어긋나고 불화가 생기고 가난하고, 가난이 줄줄줄 줄 붙어서 돌아가면서 화근이 붙어 돌아가고, 이러한 문제들이 한두 건입니까? 한 생각이 가난한데 어찌 행을 가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지르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다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걸 동조하는 사람이나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바로 넘어야, 결례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슬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고독함도 많고 허망한 일도 많은데, 그 모두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다면, 어디로 가 도는지 그걸 모르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디 인간을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삼계 오온이 한 점의 마음어거늘 그 근원으로 돌아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점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방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배신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배신해서 무엇이 이익이 있으며,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으며, 자기가 자기를, 은혜를 물려서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차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어느새 편안한 경계(境界)를 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놓는 마음 가운데 편안한 경계를 좋아하는

마음이 갖든다면 잘못 가고 있는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중생들도 편안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한데 등쳐서 놓을 수 있는, 주인공에다 놓을 수 있는 작업이 물려서지 않는 진실이라면 바로 그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깐 편안함이 오고 깎달리지 않는 법이예요.

그럼으로써 이 우주 전체는 근본 하나로 돌아가지만, 평등하게 돌아가지만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돌로 보지 말고 주인공에다 모두 일임해서 놔둘 때, 그리고 자기한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그 모두를 건건이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때,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다가만이 놓을 수 있을 때, 죽고 사는 것을 타하지 않을 때, 그런 때에 비로소 편안하면서

목이 돼 버려요, 안되니까.

이거 봐요.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예요. 그러나 선업 악업을 다 보라 이겁니다.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면 높이 놓을 사람은 높이 놓고, 얇게 놓을 사람은 얇게 놔야 일이 되지, 그 작업을 못 한대서야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에도 악업 선업을 다 놓고 배워야 돼요. 그거를 비유해서 한번 얘기 하죠.

어떤 사람이 승진을 시켜 달라고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들었어요. 그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극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뒷걸음질치 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월남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월남에 가서 그만 전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다시금 승진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진실히 했는데 후퇴가 됐으니 어떻게 됐겠소? 그 믿음이라는 게 산산조각이 났겠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도 뜻이 있으니까 후퇴가 됐겠지요.

을 줄도 알아야 자유자재의 대권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잘 주려서 듣기를 바랍니다.

물의 신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강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저의 앞길에 열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자연의 신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강과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과 안녕을 빌고 있듯이, 저는 강이라고 하는 것을 대자연, 그러니까 저의 마음의 고향에다가 하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인간이 삶이 바뀌고 재물과 복이 들어오고 이득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열나흘날 저녁, 보름날 아침 사람들이 오곡 잡곡밥을 해 가지고 강가에 나와서 제를 지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내며 또 누가 동조해서 같이 거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지내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수록)

현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4분할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중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100% 환불보장

대통합종단 사단 대승불교 조계종 (입증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입증 구비서류

- 본종 입증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창원총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